

발행처: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150-23 배곧해솔중학교 도서관 031-8063-1881

혜움을 소개합니다.

배곧해솔중학교 도서관부 혜움의 한 해를 소개합니다.

혜움: '생각'이라는 뜻의 순 우리말

배곧해솔중학교 도서관부의 이름은 '혜움'입니다.

혜움은 '생각'이라는 뜻의 순 우리말입니다.

도서관부 혜움은 책을 통해 생각하고,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서관부 혜움은 독서프로그램 행사를 기획 운영하는 기획홍보부, 도서 북큐레이션 및 서평을 작성하는 도서서평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매달 정기회의를 통해서 기획홍보부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편지로 너에게 닿기를, 움퀴즈, 책제목 줄줄이 말해요.), 도서서평부는 주제별 도서 북큐레이션 및 서평작성을 통해서 책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사서선생님과 함께 '도서관 대탈출' 학교축제 부스운영 및 'DIY책갈피' 시흥시동아리 축제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독서 문화행사를 이끌어 나갈 혜움을 기억해 주세요.



살아있는 전설 **페이커**

Best 3

페이커가 직접 추천하는 책



Level 1~1.5



나를 모르는 나에게. 하유진

청년들이 많이 하는 고민들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책

- + 라플라스의 마녀. 히가시노 게이고
- + 두 번째 지구는 없다. 타일러 라쉬

Level 2~2.5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매슈 워커

수면학자가 쓴 잠에 대한 과학적 사실, 사례를 통해 잠을 현재과 학적으로 접근한 책. 잠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줌

- +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1. 채사장
- + 처음 만나는 뇌과학 이야기. 양은우

Level 3 이상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살충제의 위험성을 최초로 조명하고, 그 위험성을 알려준 역사적인 책으로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책

- +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 + 내면소통. 김주환

글씨를 수놓다

필사란? 어학사전의 뜻을 확인하면 '베끼어 씬'이라고 되어 있다. 말 그대로 책이나 글을 그대로 베끼어 쓰는 것을 말한다. 소설가 조정래는 '소설을 베껴 쓰는 것은 백번 읽는 것보다 나은 일'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시인 윤동주, 소설가 신경숙, 김영하 등 한국문학의 대표작가들도 필사로 글쓰기 실력을 키웠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필사는 최고의 독서법으로 알려져 있다. 필사를 하게 되면 책을 정독하는 것과 함께 쓰기 능력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잘 써진 글을 따라 쓰면 자연스럽게 글을 구조와 원리를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어휘를 접할 수 있어 표현력과 문해력까지 높일 수 있다.

미디어에 더 친숙한 요즘 학생들은 손으로 글쓰기를 하기 보다는 타자를 치는 것이 편하고 연필보다는 터치펜을 쓰는 것이 익숙하다. 책을 읽는 만큼이나 작문을 하고 글을 쓰는 것을 두려워 하는 모습을 보고 올 한해 필사를 꾸준히 해보자 마음 먹고 '글씨를 수놓다.'를 시작하게 되었다. 아침시간, 쉬는시간, 점심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도서관에 마련된 필사 존에서 1학기에는 인문학 명언 2학기에는 시, 소설을 필사하기 시작하였다. 처음 필사를 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글씨를 쓰는 것이 어색하였지만 날마다 조금씩 필사를 반복하다 보니 서툴던 글씨는 점차 올곧게 변해가고, 글쓰기를 즐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필사를 하면 선물을 줘서 시작했는데 아침에 필사를 하고 교실로 가면 수업 전에 집중이 더 잘되는 거 같아요.'라고 이야기 하기도 하였다. 필사를 하는 친구들 덕분인지 소란스럽던 점심시간도 더 차분해 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